

家庭内の 食品分配에서 男・女の 差異에 대한 研究

趙美淑・姜南伊*

梨花女子大學校 食品營養學科

*서울保健專門大學 食品營養科

(1989. 12. 26 수리)

A Study on the Sex Bias in Intrahousehold Food Distribution

Misook Cho, Nam E Kang*

Dept. of Food and Nutrition,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Food and Nutrition, Seoul Health Junior College*

(Received December, 26, 1989)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basic data about sex bias in intrahousehold food distribution, by investigating 124 housekeepers living in seoul. This Survey was performed using questionnaire about the experience of male-female dietary disparity and the attitudes about sex-differential nutrition.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38% of housekeepers had been experienced in male-female disparity of food distribution at meal time in her childhood.

Protein foods(meats & fishes) and special foods were not distributed evenly to both sexes.

2. The major causes of these unbalanced, sex-differential food distribution was rather masculine priority than food shortage.

3. Compared with the past, male-female dietary disparity was disappeared. However, 47.7% of housekeepers took more care for son's meals than daugther's,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Therefore, it seems that the sex bias in intrahousehold food distribution is still remained.

4. The attitudes about sex-differential nutritio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women's education level and total income. The higher the level in education and total income, the stronger the level in opposition to the male-female dietary disparity.

I. 序 論

食品은 營養的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的이고 文化的인 意味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¹⁾. 즉 어떤 식품을 어떻게 供給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社會·經濟的인 地位나 나이, 性, 職業, 權威 등이 표현되어질 수 있다.

한 家庭내에서의 食品分配(intrahousehold food distribution)는 食品供給量이나 食品購買力과 같은 經濟的인 요인외에도, 食習慣이나 가족구조(family structure), 食品에 대한 信念(food beliefs), 傳統的인 價値觀 등보다 복잡하고 文化的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經濟水準이 향상되어도 그것이 곧 食品의 고른 分配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

Jeliffe 등의 식품分類에 따르면³⁾, 특별한 行事때 혹은 특별한 사람에게 제공됨으로써 優越感을 나타내는 식품을 權威的인 食品(prestige food)이라 하는데 性에 따른 食生活의 差異를 나타내는 식품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食品을 통한 男性의 優越感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경험되고 받아들여지며, 어린 시절에 형성된 食生活 態度는 成長한 후에도 계속 지켜나가게 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 傳統的인 儒敎思想을 바탕으로하여 家門의 繼承, 祭主의 確保, 老後依存 등을 중요시하며 이에 따른 男兒先好의 價値觀이 食生活에서 男·女의 差異를 深化시키는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食生活은 所得增大나 生活水準의 향상 및 女性의 職場進出과 社會活動증가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계속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다⁴⁾. 그

러나,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과거의 身分制度의 殘在가 거의 사라진 現在에도 食생활에 있어서 男·女의 差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가정내에서의 食品分配에 영향을 미치는 經濟的, 文化的 要因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 보고된 몇몇 조사들이 있을 뿐이며^{5)~7)} 국내에서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本 調査는 食事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主婦들을 대상으로 過去와 現在의 食生活에서 나타나는 男·女의 差異(sex bias)를 알아보고 이것이 主婦의 社會·經濟的인 특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II. 調査方法

1. 調査對象 및 期間

本 研究의 調査 지역은 서울시로 한정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서울시내 중학교 1 개교를 택하여 학생들의 어머니들을 對象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1987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선생님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어머니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회수시에도 학생들을 통하여 회수하였다. 총 배부된 設問紙는 150 부였으며, 그 중 124 부를 회수하여 分析에 사용하였다.

2. 調査內容 및 方法

1) 調査對象의 一般的 特性

調査對象者들의 연령, 教育水準, 社會參與度, 월수입 등을 設問紙를 통하여 調査하였다.

표 1. 주부의 사회참여도

항 목	빈 도	백분율(%)
매일 하루 종일 직장에 나간다.	46	37.4
일주일에 2~3 회 직장에 나간다.	4	3.3
거의 매일같이 동창회, 취미활동 등 사회활동을 한다.	10	8.1
일주일에 2~3 회 사회활동을 한다.	13	10.5
한달에 2~3 회 사회활동을 한다.	20	16.3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다.	30	24.4
계	123	100.0

2) 過去와 現在의 家庭內 食品分配에 대한 調査

主婦들의 어린 시절에 가정내에서 食品分配時 딸·아들에 대한 차이를 조사하였고, 이것을 현재의 實態와 비교하였다.

3) 食生活 態度에 대한 調査

態度에 대한 문항은 對象者인 主婦들이 食事 준비에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態度에 대한 反應은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로 나누었다.

4) 資料處理方法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事項 및 과거와 현재의 食品分配方法에 관한 事項은 頻度와 백분율을 구했다.

主婦의 特性과 家庭內 食品分配方法, 食生活 態度와의 유의성 검정은 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III. 結果 및 考察

1. 調査對象의 一般의 特性

조사대상 주부들의 연령분포는 40~49才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30~39才가 41.9%로 3·40대 주부가 全體의 약 88%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20~29才, 50~59才, 60才이상의 순

이었다.

教育水準은 調査對象者의 52.3%가 고등학교 졸업 以上이었으며,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마친 主婦가 各各 20.2%와 25.8%로 나타났다.

가정의 月收入은 30~49만원이 전체의 28.2%로 가장 많았으며, 50~59만원, 29만원 이하, 70~99만원, 100만원 이상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主婦의 社會參與度는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하루 종일 직장에 나가거나 일주일에 2~3회 직장에 나가는 경우가 약 40%였으며, 나머지 60%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다.

2. 過去와 現在 食事時間의 食品分配에서 나타난 男·女の 差異

우리 나라는 17세기 중엽 이후에 李氏期鮮의 신분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長子優待, 女子差別과 같은 男·女の 신분에 따른 차별이 일반화 되었고⁸⁻¹¹⁾, 이후 儒敎的인 家父長制 社會가 확립되면서 男尊女卑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男兒先好에 기초한 食생활에서의 sex bias가 주부들의 成長期에는 어떠한 형태로 存在하였으며 現在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調査對象 主婦들의 成長期에 식사형태는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온가족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 두레상의 형태가 가장 많았다.(63.7%) 그

표 2. 過去 주부의 성장기에 식사형태는

항 목	빈 도	백분율(%)
온 가족이 한 상에서 먹었다.	79	63.7
남자와 여자가 다른 상에서 먹었다.	31	25.0
가장만 따로 먹고 나머지 식구는 같이 먹었다.	8	6.5
남자들이 먹고 난 상을 물려서 먹었다.	2	1.6
모든 식구들이 각기 외상을 차려 먹었다.	3	2.4
기 타	1	0.8
계	124	100

러나, 男·女가 따로 먹은 경우도 전체의 1/4 이나 차지하였다.

姜의 보고에 따르면¹²⁾, 朝鮮時代에는 '男女七歲不同席'이라 하여 男女의 同度를 禁했고, 이러한 儒敎의 發상은 食生活에까지 큰 영향을 끼쳐서 '男女는 不共食'이라 하여 한 상에서 밥먹는 것을 禁하였다고 한다.

本 調査에서 나타난 結果는 이러한 유교적 慣習이 現在 中年主婦들의 成長期까지도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士小節」에 나타난 主婦의 食事禮法에 따르면¹³⁾, '아버지가 물린 밥상에서 아들이 먹고 아들이 먹고난 밥상에서 주부가 먹고 나머지는 家畜한테 갔다'고 하여 식사형태로 상물림이 흔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 이러한 물림상을 받았던 경우는 1.6%로 매우 적어서 상물림의 慣習은 비교적 빨리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표 3-1>은 成長期에 男子 형제에 비해 먹고 싶은 飲食을 못 먹었던 경험 有無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약 38%가 남자 형제들에 비해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서 食品分配에서 sex bias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못 먹었던 飲食의 종류로는 蛋白質 食品인 고기와 생선이 41.1%로 가장 많아서 식품 중 특히 肉類의 分配가 고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표 3-2).

일반적으로 性에 따른 食生活에 差異(sex

표 3-1. 成長期에 다른 남자형제에 비해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었던 경험

항 목	빈 도	백분율(%)
경험이 있다.	47	37.9
경험이 없다.	75	60.5
무 응 답	2	1.6
계	124	100.0

표 3-2. 경험이 있다면 주로 어느 음식에서었나?

항 목	빈 도	백분율(%)
흰 쌀밥과 같은 밥 종류	12	21.4
국 종류	4	7.1
고기와 생선	23	41.1
과자, 떡 등 특별한 음식	17	30.4
계	56	100.0

differential nutrition)는 狩獵·採取社會에서보다 農耕社會로 생활양식이 바뀌고 家父長制가 강화됨에 따라 더욱 深化되며 대부분의 사회에서 공급이 부족한 식품 특히, 육류에 대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Rosenberg⁵⁾는 아프리카의 農耕社會에서 女性은 육류를 먹지 못했으며 男性이 食品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있었고, 오세아니아에서도 육류의 分配에서 女性이 제외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본

표 3-3. 남자 형제에 비해 못 먹었던 이유는

항 목	빈 도	백분율(%)
음식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22	34.4
남자는 집안의 代를 이을 것이므로 여자보다 잘 먹어야 해서	3	4.7
남자는 사회에 나가 活動할 것이므로 여자보다 잘 먹어야 해서	5	7.8
원래 남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19	29.7
계	64	100.0

표 4. 현재 가족들에 대한 상차림의 形態는

항 목	빈 도	백분율(%)
은 가족이 한 상에서 같이 먹는다.	120	96.8
男子와 女子가 따로 먹는다.	0	0.0
男子들이 먹고 난 상을 물려서 먹는다.	2	1.6
家長만 다른 상에 차려주고, 나머지 식구들은 같이 먹는다.	1	0.8
기 타	1	0.8
계	124	100.0

調査 結果는 이러한 農耕社會의 관습이 조사대상 主婦들의 成長期까지 남아있었음을 보여준다.

육류 다음으로는 과자나 떡과 같은 特別한 음식을 못 먹었던 경우가 많았으며, 흰쌀밥과 같은 밥종류를 못 먹었던 경우도 21.4%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食品들을 男子兄弟에 비해 못 먹었던 理由로 男尊女卑나 男兒先好思想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食品供給量의 부족은 이차적인 이유로 나타났다. 최근 Sen 과 Sengupta⁷⁾는 가정내의 食品分配에서 sex bias는 단순히 食品供給量과 같은 經濟的인 요인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영향(sociocultural effect)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본 조사결과도 이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過去에 비해 현재 主婦들의 상차림 형태는 거의 대부분이 두레상으로 나타나서, 식사형태에

서 볼 때 男·女の 差異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표 4>.

그러나, 都市 主婦들을 대상으로한 본 調査와는 달리 최근 金이 安東郡에 대해 조사한 事列研究에 따르면¹⁴⁾, 아직까지도 農村에서는 男子와 女子가 따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차림에 男女의 差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밥상에 밥과 국을 놓는 순서로는 出生 순서대로 주는 경우와 아들 먼저 준 뒤 딸에게 주는 경우가 비슷한 分布를 보여서 아직도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아들이 중시되는 경우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아들의 식사내용에 더 신경을 쓴다고 대답한 주부는 전체의 47.7%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

이것은 현재 우리 나라 主婦들이 食事內容에

표 5. 밥상에 밥과 국을 놓는 순서

항 목	빈 도	백분율(%)
가장에게 제일 먼저 주고, 아들, 딸의 순서로 家長에게 제일 먼저 주고 出生순서대로	55	44.4
순서없이 아무렇게나	5	4.0
기 타	6	4.8
계	124	100.0

표 6-1. 현재 子女를 기르면서 딸보다 아들의 식사내용에 더 신경을 쓰는지 여부

항 목	빈 도	백분율(%)
훨씬 더 신경을 쓴다.	7	6.3
약간 더 신경을 쓴다.	18	16.2
특별히 더 신경을 쓰지 않는다.	41	36.9
안 그럴려고 하지만 무의식중에 아들에게 더 신경 쓴다.	28	25.2
기 타	17	15.3
계	111	100

표 7. 食生活 態度에 관한 調査

항 목	매우 찬성	찬 성	잘모르겠다	반 대	매우 반대	계(%)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調理는 여자가 해야 한다.	5.8	12.4	37.2	37.2	7.4	100
맛있는 음식을 했을때, 그 접시는 가장과 아들앞에 놓는다.	4.9	28.5	25.6	32.8	8.2	100
가족들의 식사시간이 다룰때, 아들 은 반드시 主婦가 상을 차려주어야 하나 딸은 스스로 차려 먹도록 하는 것이 좋다.	5.8	24.2	27.5	32.5	10.0	100
남자는 사회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 므로 여자보다 더 잘 먹고 건강해야 한다.	4.1	15.8	28.9	40.5	10.7	100

있어서 여전히 男·女의 차이를 두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아들의 식사내용에 더 신경을 쓰는 이유로는 역시 男兒先好를 기초로한 이유가 50% 이상이였다. 반면에 아들의 식사내용에 더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는 62.2%가 아들·딸을 똑같이 키우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食品供給量(6.8%)보다 文化的 요인이 男·女의 식사내용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調査對象者들의 食生活 態度에 관한 調査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응답한 主婦의 40~50%는 식사준비나 分配에서 아들·딸의 구분에 반대하였으나, 약 30%의 주부들은 여전히 特別한 음식에 대한 男性 위주의 態度와 식사준비에 대해서 아들·딸을 구분하는 態度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都市에서 食事形態나 內容면에서 男·女의 구분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표 8. 各要因 間의 相互關係

항 목	주부의 나이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사회참여도	가정의 월수입
主婦의 成長期에 식품분배에 차이를 느낀 경험	0.040 ¹⁾ (P=0.329)	0.1748* (P=0.026)	-0.1095 (P=0.113)	0.2195* (P=0.007)
主婦의 成長期의 상차림 형태	0.0712 (P=0.216)	-0.0849 (P=0.174)	0.0491 (P=0.294)	0.0030 (P=0.0487)
현재의 상차림 형태	0.0546 (P=0.274)	0.0804(0.187)	-0.0522 (P=0.282)	0.0427 (P=0.319)
현재 딸보다 아들의 식사내용에 더 신경을 쓰는지 여부	0.1054 (P=0.122)	-0.0129 (P=0.443)	0.0645 (P=0.238)	-0.0011 (P=0.495)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조리는 여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의 정도	-0.1029 (P=0.128)	0.2262** (P=0.0006)	-0.0989 (P=0.137)	0.2552** (P=0.002)
맛있는 음식을 가장과 아들앞에 놓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의 정도	-0.1160 (P=0.100)	0.1820* (P=0.022)	-0.0448 (P=0.311)	0.2469** (P=0.003)

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P<0.05

** P<0.01

sex bias 가 남아있음을 나타낸다.

3. 各要因들 間의 相互關係

主婦의 연령과 社會參與度는 <표 8>에 나타난 것처럼 食生活에서 男女의 구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主婦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成長期에 불균형된 食品分配를 받았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역시 教育수준이 높을수록 부엌일에 대한 男女의 구분과(P<0.01), 맛있는 음식에 대한 男性 우위의 태도에 반대하는 경향이었다(P<0.05).

이러한 경향은 가정의 월수입에서도 나타났다. 즉, 月收入이 많은 가정의 主婦일수록 成長期에 불균형된 식품분배를 받았던 경험이 적었으며(P<0.01) 역시 부엌일에 대한 男女의 구분에 반대하였고(P<0.01), 맛있는 음식에 대한 남성우위의 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結果는 經濟的인 요인이 아직도 가정내의 食品分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Textor 는⁶⁾ cross-cultural survey 를 한 뒤 食品供給量이 sex differential nutrition 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반면 Basu¹⁵⁾ 등은 최근 인도와 네팔 지역을 調査한 뒤 社會·經濟水準의 향상으로 인해 증가되는 食品購買力이 自動的으로 가정내에서 균등한 食品分配를 가져 오지는 않는다고 보고하여서 경제적 요인외에 社會·文化的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조사결과도 역시 이들의 보고와 같이 가정의 경제적 요인과 主婦의 價値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教育水準이 가정내에서의 食品分配에 관련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現在 한국인의 각 연령별 男·女の 영양섭취량을 비교해 볼 때, 女性이 男性에 비해 열량이나 단백질 섭취량에서 권장량에 크게 미달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9~12 개월된 어린이에서 예상되는 단백질 결핍자의 수가 女兒는 45%, 男兒는 33% 로 女兒에서 현저히 높고¹⁶⁾, 또 1956~1970 년 사이의 사망율을 비교해 볼 때, 역시 長男의 사망율(2.25 명/100 명)이 여자형제의 사망율(3.01 명/100 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아¹⁷⁾ 男·女兒의 授乳期間의 差異와 같은 잠재적인 sex bias가 食生活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食品分配에서 나타나는 男·女의 차이가 각 영양소의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要 約

本 研究는 都市 主婦 124 名을 대상으로 設問紙法을 이용하여 食生活에서 나타나는 男·女의 差異를 調査하였으며, 그 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成長期에 男子형제에 비해 불균형된 食品分配을 받았던 主婦가 全體의 약 38%로 나타났으며 특히, 육류와 특별한 행사음식의 分配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러한 불균형된 식품분배의 원인은 식품供給의 부족보다는 男兒先好思想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3) 현재 食事形態, 內容에서 男女의 구분은 사라지고 있었으나, 아직도 47.7%의 主婦가 아들의 食事內容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意識의 변화에 반해 여전히 sex bias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4) 經濟的 요인인 가정의 월수입과 社會的 요인인 主婦의 教育水準은 食生活에서 나타나는 男·女差異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주부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가정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食生活에서 나타나는 男女差異를 반대하는 경향이었다.

V. 참고문헌

- Ann A, Hertzler, Nao Wenkarn, Bluebell S, Tandae, Classifying cultural food habits and meanings. *J. of Am. Diet. Association*, 80 : 421-425, 1982.
- Mary Douglas, Fundamental issues in food problems, *Current Anthropology*, 25(4) : 498-499, 1984.
- Diva Sanjur, Food ideology systems and nutrient intake : *In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in Nutrition*, p 53, Prentice-Hall Inc. 1982.
- 모수미, 국민 식생활의 변화, 식품과 영양, 8(3) : 32-34, 1987.
- E.M. Rosenberg, Demographic effects of sex-differential nutrition : *In Nutritional Anthropology*, Norge W. Jerome, Randy F. Kandel, Gretel H. Pelto ed., Redgrave Publishing co. p 181-202, New York, 1980.
- R.B. Textor, A cross-cultural survey, New Haven, Human Relations Area Files press. 1967.
- Sen, A and S. Sengupta, Malnutrition of rural children and the sex bia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8 : 855-864, 1983
- 윤서석, 우영희, 지영숙, 김남희, 채옥희, 현대사회와 가정문화 : 한국 가정생활의 전례양식, p 227-241, 수학사, 1986.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한국여성사 I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 p 486-492, 1972.
-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 연구, 일지사, 1983.
- 최재석, 조선시대의 상속제에 관한 연구, 역사학보 : 53-54, 1972.
- 강인희, 한국 식생활사, 삼영사, 1978.
- 강인희, 이경복, 한국식생활풍속, 삼영사, 1983.
- 김진명, 性·俗의 생활을 통해 본 男女 세계의 구분-안동군 임하면 역마울의 사례-인류학론집, 7 : 152-217, 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회, 1984.

15. Amitabha Basu, Subrata K.Roy, Barun Mukhopadhyay et al., Sex bias in intrahousehold food distribution : Roles of ethnicity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Current Anthropology*, 27(5) : 536-539, 1986.
16. 김숙희, 영양실태 조사결과에 의한 연령과 사회경제적 계층별 영양상태 판정, 식품영양정보 1 : 5~36,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984.
- 17 T.H.Kwon, Mortality and Health issues ; The trends and patterns of mortality & health in the Republic of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76 : 28 United Nations, 1986.